

10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세금 불안에서 해방을

83년도 사업분 부터는 모든 축산업자(농가부업 제외)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81년말 우리나라의 닭사육 가구수는 715,542호이며 이중 소득세와 관계없는 천수이하 농가를 제외하면 9,190호가 세금과 관계가 있으며, 정부의 발표대로 농가부업의 규모가 상향조정 되면 훨씬 더 많은 양계농가가 소득세와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다만 만수이상의 873농가가 소득세 감면 종료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중에도 기왕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농가와 감면농가의 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감면농가가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10,000수이상 873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닭의 수수가 17,333,754수로 전체 53,962,892수(81. 12. 31)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가 된다.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농가의 대부분이 추계과세(인정과세)로, 불황으로 적자를본 해(年)에도 배합사로 구매액수를 기준으로해서 10~11%의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피해의식이 싹트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간 본지를 통해 기장을 권해왔으나 계란이나 닭고기를 판매할때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솝우화의 여우처럼 포도를 따먹으려다 안되면 저포도는 시다 하고 돌아서는것 처럼 기장은 불가능하다 하고 포기하여 버리는 것이다.



또 기장을 하는 경우도 육성축에 대한 생각과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세무공무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행히 소, 돼지, 닭의 생산자 협회와 축협에서 이에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국세청과 협의하여 명랑하고 합리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하자는 운동은 큰 뜻이 있는 것이다.

야스퍼스는 인간은 불안, 죄책감, 투쟁과 사망의 공포속에서 산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축산인들이 세금으로 부터의 불안과 죄책감 등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향이 강구된다면 이는 정의사회를 축산업계가 앞당겨 실현하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업계의 유통질서가 더욱 밝아 질 것이다.

물가안정에 공헌하는 양계산물

계란값이 겨우, 그것도 실로 오랫동안 회복되자 이번에는 닭고기 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간 계란값은 모든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중에도 알은 가격을 유지해서 채란업계의 어려움이 많았었다. 브로일러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 한가지 만으로도 양계업자들의 그동안 어려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부의 모든 물가통계가 7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은행 조사통계를 보면 81년까지 평균 물가지수가 75년을 100으로할 때 275.8인데 비해서 닭은 213.9, 계란은 179.4로 물가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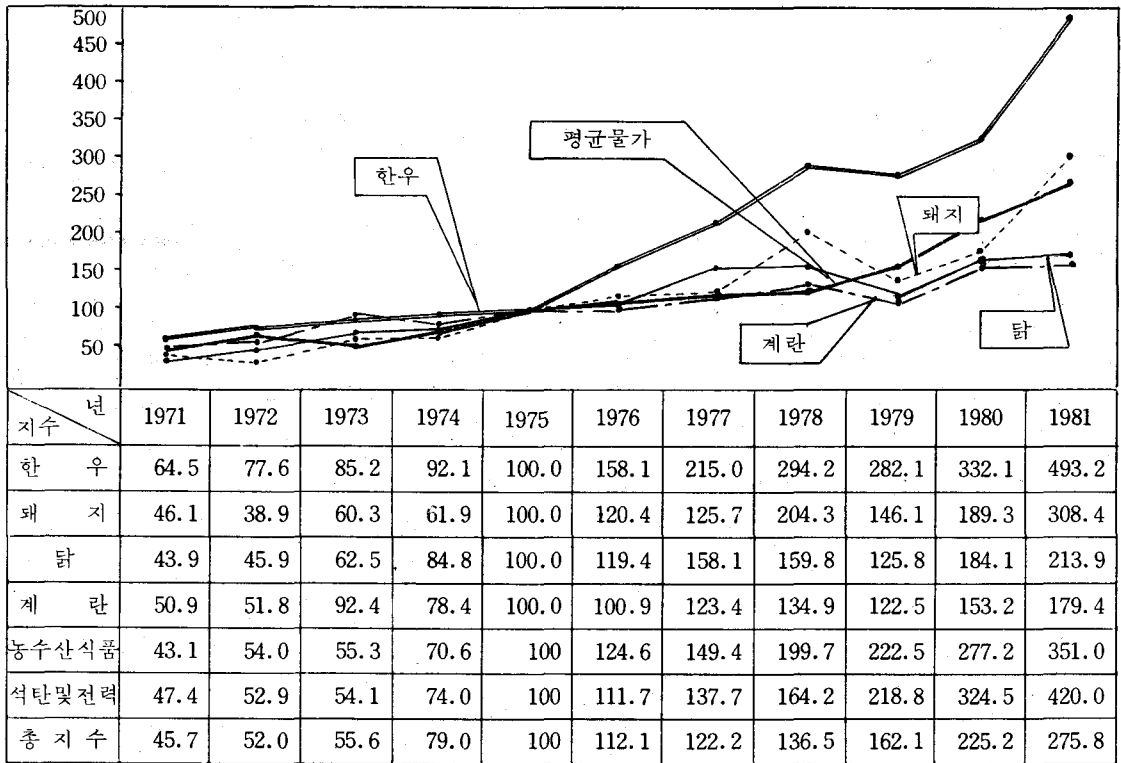
경제기획원이 농축산물 수입의 명분으로 물가안정을 말하고 있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닭고기 계란이야말로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육류 소비구조를 닭고기와 계란으로 유도하면 국내 물가도 안정되고 소비자도 값싼 고급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일석다조(一石多鳥)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양계산업은 생산조정만 하면된다는 생각은 정말 국민이 섭취하여야할 양계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소극적이고 고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양돈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닭고기와 돼지생산을 조절하면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일시적으로 혜택을 보지만 생산이 조절된 만큼의 육류는 쇠고기로 대체되어 더 많은 쇠고기를 수입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뿐으로 양계산업은 결국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제겨우 하루 13g 정도의 계란소비에서 생산조정로만 대처한다면

표 1. 연도별 가격



양계산업은 막다른 골목에서 잡히고 마는 결과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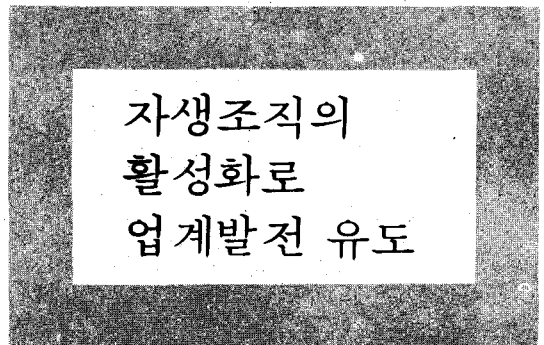
좀 더 적극적인 양계산물로의 소비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 주요국별 축산물의 공급량비교 (1인/일)
(단위: 톤)

국	별	육 류	계란류	우유류
아세아지역	한 국	29	13	19
	일 본	51	39	150
미 주 지 역	미 국	304	47	431
	카나다	272	36	425
	호 주	284	34	404
구라파지역	영 국	197	36	457
	불란서	241	34	257
	서 독	220	47	334

자료 : FAO 식품수급표, 1977

주 : 한국 1977, 일본 1976, 기타 1974년도 수치임.



계란값이 회복되자 산란계 초생추가 입식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어린병아리 사료가 생산되는량을 보아서는 아직 입식수수의 큰 변화를 볼 수는 없지만 과잉 입식의 조짐이 보인다. 우려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입식수수의 증가보다도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계통이 불확실한 불량추 생산이 더욱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확인, 종계장 등록, 부화업의 허가등 법적인 규제조치를 하였으나 법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수에 그칠 것이다.

케이지에 사육하던 닭은 평지에 내려 놓으면 잘 걷지를 못하고 불안해 한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도 넓은 광장에 혼자 마음껏 다녀보라고 하면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 광장공포증이라고 한다.

몇년전 배합사료 가격이 자율화 될때도 그렇게 자율화를 부르짖던 사료회사들이 막상 자율화 되어 마음껏 해보라고 하니 두려움이 앞서서 한편에서 다시 가격을 묶자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지금도 아주 없어지지는 않은것 같다. 묶으면 풀고 싶고, 풀면 묶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한다.

홀로 자유스럽게 사업을 하기가 두려워 계우회로 또는 친목회로 모이고 스스로 적당히 구속당하기 위하여 정관이니 회칙등을 만든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안에 들어오는 조합이나 협회쯤



되어서 구속력이 강해지면 벗어나려고 한다.

자생조직이 잘 운영되면서도 이들이 커지면 힘들어 지는것이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 자생조직의 활성화로 업계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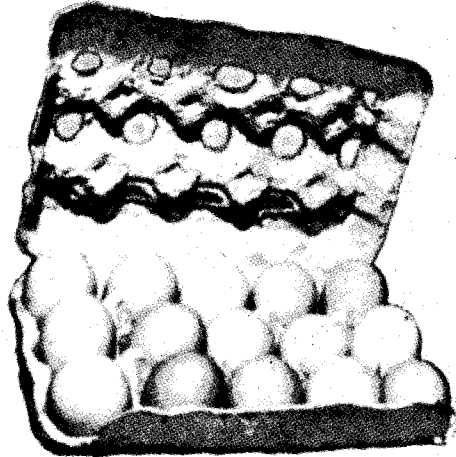
입식과열은(채란이거나 브로일러이거나) 각기 소속되어 있는 계우회나 분회를 통하여 정보를 분석하여 적당한 선에서 조절되는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위생적인 종이난좌를 사용합시다

- 1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20개들이 난좌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고등우체국 77번